

추도문

송상용 선생님을 추모하며

김호연†

지난 6월, 저는 스승님이신 송상용 선생님의 유골 안장식에 평소 좋아하시던 “처음처럼”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술을 주문하면 역정을 내실 정도로 즐기셨던 모습이 눈에 선했기도 했지만, 늘 처음처럼 그렇게 제 곁에 머무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한동안 선생님의 자리에 혼자 남아 선생님과 추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장마가 오면 선생님 자리가 걱정되었고, 가끔 선생님의 자리를 살피러 가거나 덕소·춘천·구기동의 선생님 댁 근처를 지날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리움이 사무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6월 6일, 선생님의 부고를 받았던 그 순간은 제겐 여전히 너무 아픈 기억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생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충남대 철학과 양해림 교수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춘천을 공통분모로 삼았던 우리 세 명은 삼십 년 가까이 자주 어울렸습니다. 늘 셋이 함께 있어야 할 자리인데, 비어 있는 선생님의 자리는 제 마음의 패허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해맑게 웃고 계신 선생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저는 선생님의 떠나심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눈물샘은 깊이를 몰랐고, 마음은 머물 자리를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늠할 수 없을 정도로 허전함이 큼니다. 제 삶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미래인문학융합학부, celera@hanyang.ac.kr

의 거처 하나가 사라져 버린 느낌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지금까지도 유랑하듯 살아가는 제가 유일하게 안착했던 품이 선생님이었기에 더욱 그런 듯합니다. 만일 제가 학문적으로나 인간으로서나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자 행운이었고, 다시 오지 않을 큰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선생님 바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책보다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께 논문 지도를 받은 마지막 제자였기에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과의 인연은 삼십 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잠시 쉬어가자는 생각으로 전공을 바꾸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학과를 다녔지만 정치경제학과 그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서양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전파과학사의 책들과 사회다윈주의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고, 이내 과학사라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학사를 공부하겠노라고 선생님을 불쑥 찾아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다른 학교 학생이 찾아오니 놀라실 만도 하셨을 텐데, “용기가 있는 청년이군. 해보세.” 하시면서 손을 내어주셨습니다. 학문에는 전혀 뜻이 없었던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것은 전적으로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덕분이었습니다. 우연이 필연을 놓는 다리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는 당시 버트런드 러셀의 『과학과 종교』나 『과학사 중심 교양 과학』과 같은 선생님의 글을 일부 읽은 바 있었고, 1980년 신군부에 반대하는 지식인 서명에 동참하셔서 해직 교수가 된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 생명, 환경, 윤리, 그리고 복원 과학기술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도 알게 되면서 선생님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중에 더 알게 되었지만, 선생님은 오랜 시간 세상의 온갖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그야말로 멈춰지지 않는 시간과 싸우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짙은 STS(Science, Technology and/in Society)에 대한 선생님의 시선과 활동에 매료되었습니다. 다른 삶과 좋은 세상에 대한 저의 공상적인 관심을 기꺼이 받아주셨던 까닭도 아마 선생님의 STS에 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늘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를 고민하면서 과학기술의 올바른 활용과 방향, 그리고 그것을 인문·사회와의 연결 속에서 이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기실 한국의 STS 토양은 선생님 없이는 다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일본과 중국 학자들을

모아 동아시아 STS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선생님 곁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열정적인 조직가이자 활동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기꺼이 만나는 학자였습니다. 제가 인텔리겐치아란 어떤 존재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바탕이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선생님은 과학기술학의 토양이 척박했던 한국에서 한국과학사학회·한국과학철학회·과학저술인협회·아시아생명윤리학회의 창립과 발전에 헌신하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 환경 대학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과학기술 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후일 위원장으로 추천받으셨지만 고사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다른 분을 추천하며 그 이유를 제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활동이고, 자리는 그 활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에서 분단의 아픔을 겪은 독일과 한국 학자들의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시는 일을 도모하셨었는데, 이루시도록 돕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분단된 우리의 현실을 평생 안타까워하셨고, 북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깊으셔서 이념과 체제를 넘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을 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후학들이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절제된 말투와 깨끗한 성품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한없이 따뜻했던 분이셨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한 달 남짓 입원했을 때, 당신께서도 편치 않으셨지만 제가 있는 병원으로 한걸음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젊은 사람이 고생하네. 아직 할 일이 있지 않은가. 힘내시게.” 부모님처럼 아껴주셨던 선생님 마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외국에 갈 일이 있으시면 엽서를 띄우거나 귀한 자료들을 구해 주셨고, 토마토를 사다가 파스타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으며, 음식을 가려야 하는 저를 고려해서 늘 제 위주로 메뉴를 정했습니다. 제가 잠시 거처가 필요했을 때는 당신의 집을 내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제게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제언을 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한 꾸러미씩 주시곤 했습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함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함은 저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니다. 여러 학회의 후학들을 위해 수천만 원씩 기부하시고,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숙소를 배려하셨던 일, 만

날 때면 많은 후학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시는 모습은 선생님의 내면에 자리한 따뜻한 인간애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생물학 사상 연구회를 비롯하여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면 어디든 누구든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이유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념이나 지향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었던 것도, 젊은 시절 한국의 휴머니스트 운동에 관여하셨던 일을 제게 말하면서 반성과 아쉬움을 토로하신 것도 모두가 선생님의 사람에 대한 애정과 품이 깊고 넓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둘이 자주 가던 횃집에서 “호연,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분이었는데, 어쩌면 저를 더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호연, 머무르지 마라. 용기를 더 내 봐.” 교수에게는 정년이 있지만, 학자에게는 정년이 없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게 남은 시간은 선생님의 바람을 이어가는 데 쓰리라 생각해 봅니다. 소년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호연, 잘했군. 역시 용기가 있는 청년이었어.” 하실 듯합니다.

아침 7시 전화벨이 울리면 대부분은 선생님이셨습니다. “호연, 오늘 학회는 오나?”, “컴퓨터가 또 말썽이네”, “밥 먹으러 오게.” 간단명료하고 시크한 선생님의 말투와 목소리가 벌써 그립습니다. 평생 그리울 것입니다.

송상용 선생님,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자 김호연 올림